

2020년 8월 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고용 지표 쇼크 불구 추가 부양책 기대로 상승 금융, 산업재, 원자재 업종 강세 Vs. 기술주, 유틸리티, 바이오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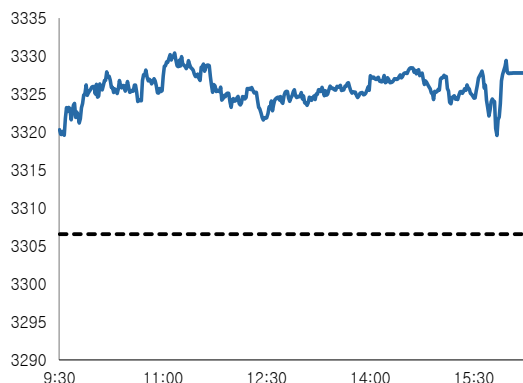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고용불안 Vs. 부양책 기대

미 증시는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즈니(+8.80%) 급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 더 나아가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경기 회복 관련 발언, 트럼프의 실업급여 관련 긍정적인 언급도 상승 요인. 다만, 고용불안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15일 있을 미-중 무역 합의 관련 회담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상승 제한된 가운데 업종 차별화가 지속(다우 +1.39%, 나스닥 +0.52%, S&P500 +0.64%, 러셀 2000 +1.91%)

미국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전일 코넬대의 여론 조사 결과 경제 재개로 고용되었던 노동자중 31%가 재 해고 당했고 26%가 해고를 연질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ADP 민간 고용보고서 결과는 쇼크 수준인 예상치인 188.8 만건을 하회한 16.7 만건 증가에 그침. 그나마 전월 수치가 236.9 만건에서 431.4 만건으로 상향 조정돼 우려가 확산되지는 않음. 이런 가운데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3 분기에는 경기가 회복 될 것이며 2021 년말까지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라고 주장하며 경기불안 심리를 완화. 다만, 클라리다 부의장은 자신의 예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더 많은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추가 실업급여 합의를 중용

한편, 추가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백악관은 추가 실업급여 금액을 400 달러로 늘리고 민주당은 논란이 있던 일부 기금을 줄이며 합의 가능성이 높아짐. 이로 인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적인 협상에 돌입 했으며 그 결과는 한국 시각 오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 시장은 지속적인 반대 속 추가 부양책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일부 진전이 나왔다는 점에서 투자심리는 개선. 한편, 재무부가 장기물 중심으로 국채 발행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며 장기 금리가 상승해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달러화가 고용지표 불안과 유로화 강세로 약세폭을 확대하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 업종이 강세. 다만 기술주와 바이오의 경우 차익 실현 매물로 부진하며 업종 차별화 지속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2,311.86	+1.40	홍콩恒生		25,102.54	+0.62
KOSDAQ		847.28	+1.43	영국		6,104.72	+1.14
DOW		27,201.52	+1.39	독일		12,660.25	+0.47
NASDAQ		10,998.40	+0.52	프랑스		4,933.34	+0.90
S&P 500		3,327.77	+0.64	스페인		7,039.70	+0.26
상하이종합		3,377.57	+0.17	그리스		637.75	+1.47
일본		22,514.85	-0.26	이탈리아		19,740.20	+0.6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 산업재 Vs. 기술주, 바이오

디즈니(+8.80%)는 양호한 실적을 특히 스트리밍 가입자수의 급증에 기반해 강세를 보였다. 스트리밍 산업 경쟁사인 넷플릭스(-1.48%), 콤캐스트(-2.13%)는 부진했다. JP모건(+1.74%)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에 기대 강세를 보였다. 프리포트 맥모란(+7.88%)은 금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급등했다. 엑손모빌(+0.87%), 코노코필립스(+1.01%)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상승에 기대 강세를 보였으며 테코에너지(+8.57%)은 매출은 부진했으나 EPS가 예상보다 양호했다는 점, CS가 커버리지를 재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했다.

아마존(+2.11%)은 월마트(-1.39%)가 아마존의 프라임 고객 정책에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를 또다시 연기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으며 월마트는 하락했다. 보잉(+5.58%)은 회사채 등급 하향 조정 소식에도 일부 상원의원의 지원책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으며 델타항공(+3.12%) 등 여타 항공주도 강세를 보였다. 캐터필라(+2.62%), 3M(+2.74%) 등 산업재 등은 부양책에 기대 상승했다. 다만 MS(-0.16%), 알파벳(+0.39%), 페이스북(-0.28%), 애플(+0.36%) 등 대형 기술주는 차익 매물 출회되며 상승이 제한되거나 하락했다. 마이크로칩테크(-8.22%)는 부진한 실적 발표로 급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12%	대형 가치주 ETF(IVE)	+0.54%
에너지섹터 ETF(OIH)	+3.72%	중형 가치주 ETF(IWS)	+0.82%
소매업체 ETF(XRT)	+2.43%	소형 가치주 ETF(IWN)	+2.22%
금융섹터 ETF(XLF)	+1.37%	대형 성장주 ETF(VUG)	+0.56%
기술섹터 ETF(XLK)	+0.37%	중형 성장주 ETF(IWP)	+0.3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57%	소형 성장주 ETF(IWO)	+1.75%
인터넷업체 ETF(FDN)	+0.22%	배당주 ETF(DVY)	+0.47%
리츠업체 ETF(XLRE)	-0.75%	신흥국 고배당 ETF(DEM)	+1.23%
주택건설업체 ETF(XHB)	+1.1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5%
바이오섹터 ETF(IBB)	-0.29%	미국 국채 ETF(IEF)	-0.33%
헬스케어 ETF(XLV)	+0.46%	하이일드 ETF(JNK)	+0.16%
곡물 ETF(DBA)	+0.42%	물가연동채 ETF(TIP)	+0.05%
반도체 ETF(SMH)	+0.09%	Long/short ETF(BTAL)	-1.8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82.46	+1.06%	-1.13%	+2.65%
소재	388.22	+1.53%	+0.33%	+7.25%
산업재	621.97	+1.97%	+1.25%	+7.28%
경기소비재	1,165.04	+1.40%	+3.08%	+5.32%
필수소비재	647.64	-0.22%	+0.74%	+5.74%
헬스케어	1,241.86	+0.49%	-0.25%	+4.69%
금융	403.89	+1.46%	-0.64%	+4.87%
IT	2,002.02	+0.35%	+6.21%	+5.67%
커뮤니케이션	192.77	+0.25%	+1.66%	+2.12%
유틸리티	305.02	-1.25%	-1.15%	+4.46%
부동산	223.10	-0.64%	-1.75%	+2.4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미국 고용불안 Vs. 개인 수급

MSCI 한국 지수 ETF 는 2.43%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1.09%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6.1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개인들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2018 년 10 월 초 이후 처음으로 KOSPI 기준 2,300pt 를 상회했다. 정부의 뉴딜 펀드 조성 및 이에 기반한 2 차 전지 업종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바이오 업종의 호재에 따른 급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고용불안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 협상 지속과 일부 개별 기업들의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간 점은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미국 고용지표가 쇼크라고 할 정도로 위축되었다는 점은 부담이다. 특히 코로나 재 확산으로 미국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한국 증시가 수급으로만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불안 심리는 여전하다.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의 부양책이 지속되고 있으나 예상과 달리 경기 개선 속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급의 한 축인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를 약화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미 의회의 추가 부양책 협상, 7 일(금) 미국의 고용보고서, 15 일(토) 미-중 무역협상 이행 관련 회담 등을 지켜 보며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 지표 쇼크

미국 7 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예상(188.8 만건)을 크게 하회한 16.7 만건 증가에 그쳤다. 다만 전월 수치는 기존의 236.9 만건에서 431.4 만건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 대기업이 12.9 만건 증가했고 소기업은 6.3 만건 증가했으나 중형기업은 2.5 만건 감소했다.

7 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57.1)이나 예상(55.0)을 크게 상회한 58.1 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주문(61.6→67.7)이 크게 상향 조정 되었으나 고용지수(43.1→42.1)은 둔화된 점이 특징이다.

6 월 유로존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1.3% 증가해 전월(yoy -3.1%) 발표나 예상(yoy -0.5%)를 상회했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5.7% 증가해 전월 발표(mom +20.3%)나 예상(mom +5.9%) 보다는 소폭 위축 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금, 신흥국 중앙은행 보유량 증가 소식으로 상승세 지속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가 확대되고 미국 석유회사가 지난주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큰 858.7 만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다. 여기에 EIA 또한 지난 주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큰 737.3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한 점도 상승 지속 요인이었다. 특히 쿠싱 지역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적은 53.2 만 배럴 증가에 그친 점도 긍정적이었다. 다만, 가솔린 재고가 감소 예상과 달리 41.9 만 배럴 증가하고 정제유 또한 159.2 만 배럴 증가해 상승폭을 제한 했다.

달러화는 고용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나쁘게 나오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유로화가 소매판매 개선에 기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점도 달러 약세 요인 중 하나 였다. 한편,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자 역외 위안화를 비롯한 신흥국 환율과 상품시장 관련 환율등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고용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발표되었으나 상승했다. 미 재무부가 3 분기에 7 년물 이상 장기물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하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고용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발표되기는 했으나 전월 발표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점, ISM 서비스업 지수 개선등도 상승 요인 중 하나 였다.

금은 달러 약세 및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환율 위험 분산 위해 금 보유량을 높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세를 지속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기대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60%, 철근은 1.68%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2.19	+1.18	+2.23	Dollar Index	92.862	-0.56	-0.63
브렌트유	45.17	+1.67	+2.45	EUR/USD	1.1864	+0.52	+0.61
금	2,049.30	+1.40	+3.67	USD/JPY	105.59	-0.12	+0.64
은	26.890	+3.31	+10.56	GBP/USD	1.3114	+0.33	+0.90
알루미늄	1,767.00	-0.17	+2.43	USD/CHF	0.9085	-0.53	-0.45
전기동	6,494.50	+0.64	+0.32	AUD/USD	0.7191	+0.43	+0.04
아연	2,409.00	+2.97	+4.88	USD/CAD	1.3267	-0.39	-0.55
옥수수	323.25	+0.94	-0.92	USD/BRL	5.3009	+0.22	+2.52
밀	510.75	+0.49	-4.13	USD/CNH	6.9443	-0.43	-0.79
대두	878.75	-0.34	-0.73	USD/KRW	1188.80	-0.44	-0.36
커피	123.40	-0.04	+7.77	USD/KRW NDF1M	1186.16	-0.60	-0.3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546	+3.92	-2.80	스페인	0.306	+2.60	-3.90
한국	1.292	-1.30	-1.30	포르투갈	0.322	+2.70	-3.00
일본	0.012	-0.60	-1.10	그리스	1.038	-0.10	-2.80
독일	-0.506	+4.70	-0.80	이탈리아	0.971	+2.50	-2.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